

금호타이어·기아 광주공장 파업에 가슴 졸이는 협력사들

“월급은 커녕 ... 공장 문 닫을 수도”

광주·전남 450여개사 파업 장기화 우려

“제발 올해 만큼은 장기파업은 없었으면 해요. 벌써 18년째 파업 때문에 해마다 이 맘 때쯤이면 가슴부터 두근두근 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인 A사(광주시 하남산업단지) 대표는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으로 가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원정업체가 장기파업에 들어가면 협력업체들은 직원들 월급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일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에 이어 조만간 주·야간 4시간씩으로 파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250여개

의 기아차 협력업체들은 벌써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문을 노크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연례 파업에 대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왔다는 씁쓸한 뒷얘기도 들린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력제품들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납품물량마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실정은 여느 해보다 어렵다.

A사는 이미 지난해 2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했는데, 올해 예상매출을 지난해보다 13% 낮춰 잡아놓은 상태

다. 설상가상으로 A사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 가운데 일부 영세업체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차체부품을 광주공장에 납품하는 B사도 지난해 매출 170억원에서 올해 140억원까지 떨어졌다. B사 대표는 “대부분 협력업체들의 납품시스템이 Just in Time(적시생산·고객에게 판매될 제품의 조립공정에 꼭 필요한 자재나 부품을 제때에 공급하는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 광주공장이 멈추면 납품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파라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마련이 힘들어진다”고 걱정했다.

지난 2~6일 부분파업에 이어 8일

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금호타이어의 200여개 협력업체들도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마찬가지다.

타이어 부품을 제조하는 C사 대표는 “이미 받아놓은 주문물량이 7일을 넘기기도 힘들다”면서 “파업이 7일을 넘게될 경우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D사 공장장은 “금호타이어 해외공장의 부품을 일부 납품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위해서는 광주·곡성공장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상조업에 들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보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공동주택 분양가 2% 오른다

내일부터 ... 기본형 건축비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8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2% 인박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 9월1일

등 1년에 2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새 15%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가량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3월1일 고시)보다 4.40%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 85㎡, 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1억4천836만원에서 1억5천490만원으로 654만원 상승한다.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이다. /연합뉴스

택지도 미분양 심각

상반기 공급 49% 달해 ... 2년후엔 주택난 우려

주택 미분양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동주택용지의 미분양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지어봤자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택지 미분양이 쌓여 갈 경우 2~3년 후 주택난이 심각해 질 수 있다.

7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절반 가량은 미분양돼 분양 제공 고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이 1~6월에 분양한 공동주택은 총 291만7천㎡로 이중 49.5%인 144만4천㎡가 미분양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민간이 자체적으로 택지를 확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이 분양하는 택지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불과 1년여 전인 작년 4월에 한국토지공사가 인천 영종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의 경쟁률이 평균 22.4대 1, 최고 59대 1을 기록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올해 미분양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지구, 광택 소사별지구, 양주 옥정지구, 고양삼송 등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도 많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조차 공동주택용지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급증 등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원한 민소매 어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슬리브리스(민소매) 패션이 올 여름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4층 SJ매장에서 여성고객들이 ‘슬리브리스’ 제품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공공기관 공사비 평균 2.8% 올랐다

원자재·유가상승 영향

공공기관의 건축공사 공사비가 원자재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6% 상승했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건축자재 가격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건축공사비가 적게는 1.19%에서 많게는 7.37%까지 평균 2.8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축·기계설비·전기

통신 등 1만1천179 품목으로 조사품목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은 전체의 30%(3천444 품목)이며, 내린 품목은 3%(403 품목), 나머지 63%(7천270 품목)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공사별 가격 등락을 비교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형강류가 55.6%, 철강

류가 52.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계분야에서는 주철관류가 23%의 증가한 반면 소화기류는 15% 감소했다.

가격동향분석 결과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평균 11.8% 상승하였으며, 이 가운데 석유제품과 금속은 각각 22%, 32%로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준공 안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사들인다

국토부, 오늘부터 3차 매입

아직 준공되지 않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도 정부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8일부터 3차 매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미분양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천143가구를 사들였으며 3천200여가구에 대해서는 가격협상 또는 임대수요 평가를 준비중이다.

3차 매입신청은 8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으로 특히 지금까지는

‘준공후 미분양’만 대상으로 했으나 ‘연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11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사들인 미분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전남본부-서울대병원 연계

신안 섬지역 무료 순회진료 나선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농협보험의 의료지원사업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연계, 신안군 섬지역 무료 순회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보험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서울대병원 무료진료는 8~10일 신안

군 암태·안좌·팔금·자은면에서 실시된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외국인 여성농업인 가정 등 2천여명이 진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30명이

최첨단 진료차량을 동원해 응급의학과·내과·정형외과를 포함해 안과·치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영상의학과 등 8개과가 종합병원급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NH보험본부는 농협보험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농업인의 건강 지킴이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8억원 상당의 최첨단 순회진료 버스와 함께 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존식 관리 지침(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

우수 국내 기술자의 자존심, 최첨단 전국 A/S시스템

국내유일 냉동보존식전용 디지털 냉동보존고

대리점 모 집

순천, 여수, 광양지역 대리점
목포, 나주, 무안지역 대리점

푸른유통

0452-7110-385-2939 1588-6739